# 日천태종, 종조 사이쵸 1200주기 법요식

## 6월 4일 엔랴쿠지서 진행, 코로나로 행사 축소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고대 불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위인이자, 일본 천태종 종조인 전교대사 사이쵸(最澄, 766-822) 스님의 입적 1,200주기인 6월 4일을 맞아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엔랴쿠지(延曆寺)가 기념 법요를 봉행했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교토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들은 법요 행사를 특별 보도했다.

사이쵸 스님 기일인 6월 4일, 엔랴쿠지 동탑 대강당에서 봉행된 기념법요 '고쇼도 법요(御祥當法要)'는 현 일본 천태종의 종정인 천태좌주 모리카와 코에이 스님을 법주로 17명의 대중스님들이 이끌었다.

올해로 입적 1200주기를 맞이한 사이쵸 대사의 기일에 맞춰, 일본 천태종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사업을 준비하였으나 격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 및 중단됐다. 4일 봉행된 기념법요 역시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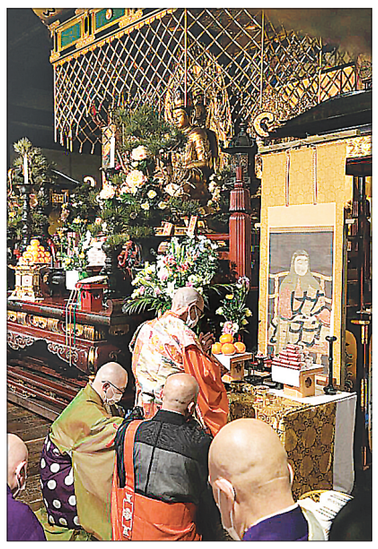
엔랴쿠지 측은 "본래 50년마다 돌아오는 기일을 대원기(大遠忌)로 삼아 평소보다 엄숙하게 기도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1,200주기와 겹쳐 더욱 장엄하게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시국 속에 축소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대신 모든 법요를 3일에 걸쳐 진행하는 등 그 내용적인 면이 더욱 강화됐다.

첫 기념법요는 6월 3일, 종정인 천태좌주 스님이 사이쵸 대사의 진영에 차와

### 8세기 당유학 천태종 개창
### 전국순회 특별전 개최 예정

향을 올리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기일 당일인 4일에는 강당의 내부를 요잡하며 염불을 외우는 상행삼매(常行三昧)가, 5일에는 태장만다라공양(胎藏曼荼羅供養) 등이 진행됐다.

4일 진행된 상행삼매에서는 1200년 전 사이쵸 대사의 손으로 직접 점등해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는 등불 '불멸의 법등'이 엔랴쿠지의 근본중당(根本中堂)에서 분등(分燈)돼 법요식장인 강당으로 이운됐다.


사이쵸대사의 진영에 손을 모으는 모리카와 코에이 천태좌주. 사진출처=교토신문

모든 법요 의식은 천태좌주의 집전 하에 쇼묘(聲明)라고 하는 일본식 범패와 작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행사 중간에는 명사들이 영상으로 참여해 사이쵸 대사가 남긴 명언들을 낭독했다.

4일 오전에는 특히 대강당에서의 기념법요가 이뤄지기에 앞서 천태좌주와 각 천태종 본산의 주지 스님들이 모여 사이쵸 대사의 탑묘(塔廟)에 헌다했다.

엔랴쿠지 측은 "헌다된 차는 사이쵸 대사가 당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차나무 후손에서 채엽한 것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차밭에서 제다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천태교학을 이어 나간다는 뜻에서 참가자들이 〈법화경〉의 내용을 서로 문답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법요를 회향한 후 일본 천태종 아베 쇼코 종무종장 스님은 "종조께서 원하셨던, 안정과 조화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속히 코로나 19가 안정되어 많은 분들이 종조의 발자취를 느끼러 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대사 사이쵸는 8세기경 당으로 유학하여 천태교학을 일본으로 가져와 천태종을 개창했다. 이후 수도인 교토의 북쪽에 엔랴쿠지를 개산하였고, 이후 엔랴쿠지는 천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교사상의 산실이 됐다. 일본 천태종과 일본 문화청은 사이쵸 대사 1200주기를 기념해 '사이쵸와 천태종의 모든 것'이라는 전국 순회 특별전을 개회할 예정이다. 특별전은 오는 10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되며, 내년 5월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종료될 계획이다.

# 달라이라마, 티베트 청년들에 온정 전해

## 연례 티베트 청년 법회, 온라인으로 진행돼

지난 6월 3일 티베트 전문매체 '파윱'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청년들을 위한 연례법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올해 법회의 주제로 쫑카빠 대사(1357~1419)의 증도가(證道歌)를 교재로 양일간 법문을 진행했고, 질의응답을 통해 티베트 청년들에게 연민과 따듯한 온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법문은 한국어를 포함해 각국의 언어로 통역되어 온라인 생중계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는 먼저 달라이라마가 쫑카빠 대사의 증도가를 설명하고, 이어서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법문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의 불안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서 분노와 갈애를 줄이고 사랑과 자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 것이며, 이러한 감정들이 점차 늘어나면 세상 역시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자비심을 실천할 것을 거듭 역설했다. 질의응답시간에서 한 티베트 청년은 일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달라이라마가 다람살라 관저에서 티베트 청년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텐진 잠펠 스님

않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달라이라마는 "마음을 단련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이는 갈애와 분노와 같은 불안정한 감정들을 다루는 법도 포함한다. 꼭 불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배우고 반성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선 이해하고 확신한 것을 명상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달라이라마는 특히 현대의 불자들은 단지 경과 논서에 쓰여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달라이라마는 "옛 경전과 논서에는 수미산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주장이다. 우리는 논리와 이성,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사찰에서 캠핑을…사찰 캠핑장 개업

## 템플스테이에 이어서
## 템플 캠핑 개념 도입

캠핑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에서 상설 사찰 캠핑장이 문을 열어 화제다. 천년고찰 다이타이지(大泰寺) 경내에 생겨난 '템플캠프'에 대해 6월 1일, 일본의 '야후뉴스', 'PR 타임즈' 등이 보도했다.

다이타이지는 2019년, 1일 2팀까지 받는 소수 템플스테이를 개시했다. 당시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과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호평을 받은 후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확대에 나섰다.

사찰 측은 "주지스님이 본래 지역의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의 응대에 익숙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사정 등에 밝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다이타이지는 경내의 여유 부지와 시설들을 정비, 확충하여 본격적인 캠핑장을 개설했다. 다이타이지의 캠핑장은 텐트를 칠 수 있는 오프사이드 4구획, 캠핑


사찰 캠핑을 개시한 다이타이지의 모습. 사진출처=템플캠프 공식홈페이지

카나 차량캠핑이 가능한 5구획으로 총 9팀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캠핑장은 2020년 11월에 시작했으나, 방문객들의 제안과 건의를 반영하여 규모와 프로그램, 제공서비스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재개장에 나섰다. 지금까지 사찰이 경내에 캠핑을 허락하거나 이벤트성으로 캠핑장이 열린 적은 있었지만, 경내에 상설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일본에서 최초다.

특히 다이타이지의 '템플캠프'는 이용자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캠핑 이용자중 신청자는 아침예불과 선방에서의 좌선, 조석예불 전의 범종 타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주지 니시야마 쥬카이 스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사찰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고, 사람간의 인연을 알 수 있는 모두의 공원과 같은 장소가 되길 원한다"며 탬플캠프의 개업취지를 밝혔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여행이 조금씩 다시 재개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여행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정한 자연 속에 둘러싸인 템플캠프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템플캠프를 개업한 다이타이지는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소재한 사찰이다. 다이타이지는 1200년 전 일본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쵸(最澄)대사가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던 뱀을 퇴치하고 버드나무로 약사여래를 조성해 모신 것에서 건립됐다. 현재 다이타이지는 약사도량으로 이름이 높다.

천태종 사찰이던 다이타이지는 300년 전, 영주의 명에 의해 임제종 사찰로 변경 후 지금까지 선종사찰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천태밀교와 선종의 두 문화가 어우러진 사찰로 그 문화적 가치가 높다.

박영빈 객원기자

# 고대 인도불교 석굴사원 추가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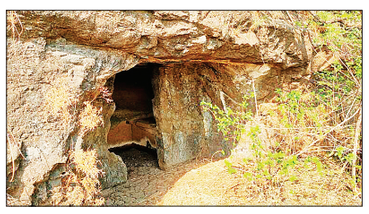
## 인도서부 '판다브 레니 석굴군', 2세기만에 추가 발견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나시크 지구의 불교유적인 판다브 레니(Pandav leni) 석굴 근처에서 3개의 석굴이 추가로 발견되어 화제다.

지난 6월 3일 인도 매체 '인디안 익스프레스', '힌두스탄 타임즈'는 판다브 레니 석굴군 근처에서 추가로 발견된 3개의 석굴유적의 소식을 전했다.

판다브 레니 석굴군은 트리라슈미 언덕에 산재한 25개의 석굴사원 유적이다. 1823년, 영국군 제임스 델라메인 대위에 의해 발견된 이 석굴들은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3세기 사이에 조영됐으며, 6세기까지 추가적인 조각과 구조들이 추가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판다브'라는 이름은 팔리어로 황토색을 뜻하는 '판드루(Pandru)'에서 유래했으며, 이곳에 거주했던 스님들의 가사색깔에서 온 것으로 전한다. 자이나교에 봉헌된 11번 석굴을 제외하곤 모두 불교석굴로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판다브 레니 석굴군 근처에서 추가로 발견된 3개의 석굴유적. 사진출처=인디안 익스프레스

지난 5월 22일 ASI는 유적들의 배수로들을 청소하면서 새로 발견된 석굴중 2곳을 발견했다. 이후 보존팀장인 라케쉬 센데 선임연구원이 현장보존과 주변 수색을 지시하면서 세 번째 석굴도 발견했다.

30년간 판다브 레니 석굴을 연구해온 트리라슈미 불교연구소 아툴 보세카 소장은 "이 석굴은 판다브 레니 석굴 반대편에 있으며 기존 조영지들보다 20m 가량 높게 있다. 조각의 양식을 보면 판다브 레니 석굴보다 오래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구조에서 승려들의 주거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